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 본당 소식

### ◆ 성지 순례

- 일시: 5월 31일 (토) 오전 11시
- 장소: Basilica and National Shrine of Our Lady of Consolation  
315 Clay Street, Carey, OH 43316  
(<http://www.olcshrine.com>)
- \* 우리본당 신부님께서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시며, 기도 지향은 우리 공동체와 각 가정의 성화입니다.
- \* 현지에 10시 45분까지 도착해 주시고, 카풀 가능하며, 점심은 각 레지오 단체에서 준비합니다.
- \*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는 최레지나 꾸리아 단장님(614-915-8315)에게 연락바랍니다.

### ◆ 건강 무료 진단

- 일시: 5월 24, 25일 (아시아 페스티벌)
- 장소: Franklin Park (1777 E. Broad Street)
- \* Multi Purpose Building 에서 당뇨, 콜레스테롤, 간염, 골다공증 등 건강 무료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 오늘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 ◆ 오늘 미사 후 복사단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 ◆ 주일학교 자모회 봉사자
  - 5월 25일: 김용선 전희수
- ◆ 친교 준비 봉사자
  - 5월 25일: 김기락
- ◆ 5월 친교 후 봉사: 이호영 구역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매월 셋째 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35.00
교 무 금	\$990.00
감 사 헌 금	\$120.00
BAA	\$200.00

- 교 무 금: 이경환 김도형 홍그루 이제욱 연도흠 정동완 김오경
- 감사헌금: 새 영세자 일동
- BAA : 박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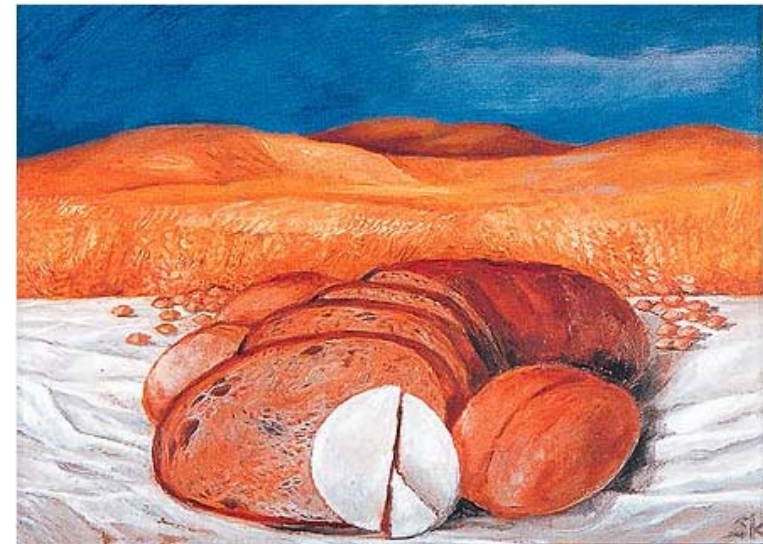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May 18, 2008



<생명의 빵>

지거 퀴더 (1925- ), 유화, 작가소장,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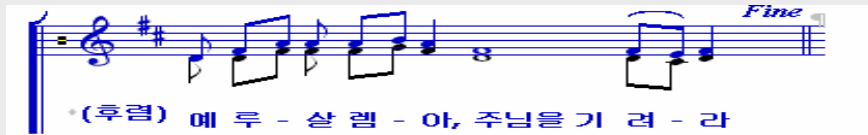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신명기 8,2-3.14-16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화답송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445단 12명
이호영	단 명	8,535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445단 68명
김효임	단 명	1,0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5/11/08 (220주)

☞ 총누계: 197,385단 12,670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5월 25일	6월 1일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인영범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 오늘의 성가

♫ 입당: 496      ♫ 봉헌: 220  
♫ 성체: 162 163      ♫ 파견: 169

##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서울대교구

오늘 교회의 전례는 성체성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겨 주신 큰 선물입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기쁨진 참밀을 먹게 하고, 바위의 꿀로 배부르게 하리라”(시편 81,17 참조)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의 일치를 사도 바오로는 신비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성체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낫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신명 8,3)라고 오늘 제1독서에서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요한 6,57)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늘 활기 있는 몸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자주 언급하던 ‘하느님을 향하는 한 마음 한 뜻’을 형성합니다.

이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얻게 되는 생명을 통해 표현됩니다. 또한 성체성사를 통해 갖게 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 양육되는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뜨개진 몸’으로서 그리고 ‘흘린 피’로서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까지 자신의 온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뜨개진 몸’과 ‘흘린 피’를 받아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라는 영성체 전의 고백을 입으로만이 아닌 온 마음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듯, “그리스도의 몸”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 “아멘”이 참된 대답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간직하고 진정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성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늘 저 높은 곳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